

# 민주당 신인 vs 무소속 현역...양강 구도

당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주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무소속
이름	서동용(55)	김창남(50)	이경자(49)	유현주(49)	고주석(53)	정인화(62)
학력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동국대 행정대학원 북한학과 졸업	서남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졸업	광주 서석고등학교 졸업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관광정책개발학과
경력	(현)민변 변호사 (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아시아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현)광양만 녹색연합 운영위원 (현)심상정대표 사회복지 특보	(전)전라남도의회 의원 (현)민주당 광양시위원장	(현)당 지역구 부위원장 (현)제20대 국회의원	(전)생용자동차(주)과장 (전)정신개혁시민협 사무총장

## 4·15 총선, 이곳이 관심 선거구 <11>순천·광양·곡성·구례를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는 여야 5개 정당과 2명의 무소속 후보 등 모두 7명이 출마해 선거마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동용(55)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미래통합당은 김창남(50), 정의당은 이경자(49), 민주당은 유현주(49),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고주석(53), 무소속으로는 김중수(55) 후보가 출마했다. 현역 의원인 정인화(62)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표발을 갈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서동용 후보와 재선을 노리는 무소속 정인화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회(민변) 출신인 민주당 서동용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권향엽 후보를 누르고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서 후보는 그동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피해자 구제활동에서부터 여순사건 재심 재판까지 수년 간 지역민들과 호흡하면서 동네 변호사로 활동, 인지도가 높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행정학과 출신 변호사로서 행정과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점과 지역 내 활동을 통해 학생·노동자·시민·지역운동에 맺은 폭 넓은 인맥도 이번 총선에서 표심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후보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 안전과 현 정부의 개혁 완성을 위한 중요한 선거"라면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정치로 변화하는 전환적인 만큼 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7명 출사표 막판 표심잡기 총력 민주당 서동용 인지도·인맥 넓어 무소속 정인화 행정·의정활동 강점 통합당 김창남·정의당 이경자도 표발같이

서 후보는 여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 전남 동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광양항 환적항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섬진강 3대 봄꽃 축제(매화·산수유·장미) 연계한 남도 대표 축제 활성화, 농어민수당 중앙정부 지급 확대 법제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을 타고 국회에 입성한 정인화 의원은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나섰다. 정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49.88%의 득표율로, 3선 중진 의원인 민주당 우윤근(37.67%) 의원을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국민의당의 '녹색돌풍' 도 있었지만, 광양과 곡성, 구례에서 50% 안팎의 고른 득표율을 보였다.

정 후보는 30년의 행정경험과 국회의원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 수립과 지역발전 예산 확보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지역발전 예산 2조400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지역발전의 초석을 놓고 국가 번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저 정치인에 많은 응원을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인화 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제1호 법안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밖에 주요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청년 첫 일자리지원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시아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자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김창남 후보가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주민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다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종합대학 유치 등 지역에 변화를 줘야 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순천 지역구 분구,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이경자 후보는 노동과 환경, 보건의료와 청년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핵심공약을 알리는 데 전념하면서 정책 선거를 펼쳐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노동과 지역 복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게 강점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아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대한 중요한 선택"이라면서 "동등한 사회, 반칙없는 사회, 정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남도위원을 지낸 민주당 유현주 후보는 진보정치 한 길을 20년 동안 변함없이 걸어온 진정성을 앞세워 바다 민심을 흔들고 있다. 그는 "우리 사회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는 점에서 진보적 시민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혁명배당금당 고주석 후보, 무소속 김중수 후보도 선거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인간힘을 쏟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판세 분석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는 여야 후보 및 무소속 후보까지 7명이 출마,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격전지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 순천시 해룡면이 합쳐지면서 처음 등장한 선거구여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크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인구 5만5000명, 유권자 4만1000여명이 사는 순천 해룡면의 민심 향배가 당락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꼽히는 지역이다.

현재까지 판세를 종합하면 광주·전남지역에 불어닥친 거센 더불어민주당 바람 속에 여당 후보인 서 후보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세적이다.

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벌였던 권향엽 예비후보가 재심 신청을 하는 등 내부 분열 조짐이 있었지만,

## '원팀 민주당' 완성 서동용 우세 속 해룡면 표심 당락 변수

다행히 공천경쟁을 벌였던 권 후보와 박근표 후보가 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원팀 민주당'을 완성, 당 조직을 빠르게 추스리면서 '민주당 바람'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의 막무가내 '선거구 쪼개기'로 인해 민주당과 중앙 정치권에 분노한 순천 해룡면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확정 상황에 따르면 광양 12만 5136명, 곡성 2만5904명, 구례 2만3328명으로, 순천 해룡면(4만1254명)이 광양시 다음으로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다. 해룡면은 순천 신대지구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곳이다. 따라서 해룡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번 총선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

는 최대 변수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현역 의원인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순천 '쪼개기 선거구' 확정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순천 해룡면 민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서 후보도 해룡면의 선거구 원상 회복을 주장하면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 해룡면 민심이 쪼개기 선거구에 대한 '여당 심판론'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무소속 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주당 바람'이 선거 막판까지 불 경우에는 서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전남 2만7000세대 도시가스 혜택

2년 내 301km 배관망 구축

전남도는 2년 내 301km의 배관망을 구축해 도내 2만7000세대가 도시가스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가스는 지난해까지 19개 시·군 46만4000가구에 배관망 1439km, 정압기 265대가 설치돼 있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전남도내 세대의 56%에 해당하는 49만1000가구가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지역별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공사는 여수 3807세대(53km), 목포·영암·무안·강진 권역 3014세대(34km), 순천·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 권역 4328세대

(25km), 나주·담양·화순·장흥·해남·함평·영광·장성 권역 3924세대(41km) 등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추진한 배관망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목포도시가스를 비롯 대화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해양에너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경제성이 낮고 도시가스 배관망이 없는 도서지역 완도·진도·신안 등 3개 군에 대해서도 완도 386억원, 진도 277억원, 신안 193억원을 각각 투입해 LPG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 시행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5월1일부터 신청 접수

광주시는 "올해부터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 확대 창출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기존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쌀농업직불제 등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새롭게 시행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농업, 축산) 및 친환경직불제(논이모작)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이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전업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다.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은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법령·고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5월1일부터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정삼 전 광산부구청장 시민 공공일자리센터본부장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정삼 전 광산부구청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민 공공일자리센터' 본부장에 임용됐다.

광주시는 13일 "이 전 부구청장을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인 시민공공일자리센터 본부장 자리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현재 재판 중인 공직자의 복귀를 놓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정삼 광주시 혁신정책관은 "그동안 공무원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정삼 전 광산부구청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민 공공일자리센터' 본부장에 임용됐다. 광주시는 13일 "이 전 부구청장을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인 시민공공일자리센터 본부장 자리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현재 재판 중인 공직자의 복귀를 놓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